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12

땅 되살리기

부처님은 상용아함경에서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어떠한 수행자 또는 성직자들일지라도 땅의 세계(苦)를 알고, 땅의 세계(苦)의 원인을 알고, 땅의 세계(苦)의 소멸을 알고, 땅의 세계(苦)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면, 수행승들이여, 그들 수행자 또는 성직자들은 나에게 수행자로서 올바른 수행자이며, 성직자로서 올바른 성직자이다."

고해의 세계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엄청난 것은 현대산업사회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토양의 산성화, 원시림의 파괴, 사막화, 폐기물오염 등으로 조화로운 땅의 세계(苦)를 파괴하고, 생사고해의 땅의 세계에 인간이 탐진치 삼독을 더하여 불모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땅의 세계(苦)



○인간의 탐진치 삼독이 불모의 땅을 만든다. 그러나 자연과 인간은 공동생태계에 공존할 수 있는 자비스런 해결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인간탐욕 줄이고 자원 재활용 필요 유기농법 확대·쓰레기 감량 바람직

우리는 이제까지 미시적으로 땅, 물, 불, 바람과 생명현상의 상호의존적 연기관계로 이루어진 거시적인 땅의 본질에 관해 살펴보았다. 또한 그러한 땅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다른 거시적인 땅, 물, 불, 바람 및 생명현상과 관계를 맺고 생성되는가를 공해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땅의 세계(苦)는 그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가 공진화하면서 잘 조화되어 가지만 본질적으로 무한한 생명공동체가 살고있는 생사

로, 쉽게 말하자면 과거 수많은 겁을 통해 우리 자신이었던 땅이라는 생태공동체를 되살려 조화롭게 하는 자비스러운 방도를 점진적으로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 토양의 산성화와 중금속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대기오염을 줄여서 산성비의 피해로부터 토양을 보호해야만 한다. 여기에

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 수 있다. 예를들어 가정이나 회사에서 난방을 도를 조금씩 낮추거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키거나 자동차를 덜 사용해서 산성비의 원인인 유황이나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퇴비를 사용해서 점차 유기농법을 확대해감으로써 농토의 산성화를 줄여나가

야 한다. 둘째, 원시림의 파괴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다목적 기업의 황포에 맞서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천적인 폭재소비를 줄여나가고 나무를 많이 심는 일이다. 특히 열대림의 활엽수로 만든 가구, 목재, 합판 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하며,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종이류는 재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셋째, 토양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방지를 통한 기후의 안정화, 원시림 벌채의 중지, 초원지대의 과방목·과경작의 중지, 지하수의 보호, 그를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등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넷째, 토양의 폐기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을 통한 각종 쓰레기나 폐수의 방류를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독성이 강한 산업폐기물이 철저히 제거되어야 하며 야산이나 강, 호수에 무단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땅의 세계(苦)의 소멸, 즉 적멸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그리고 땅의 세계의 본래적인 생사고해는 끝없는 무한판단의 자비심으로 정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땅의 세계(苦)에 대한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수행자의 길이며 성직자로서 올바른 성직자의 길일 수 있는 것이다.

턱박한 스님 본사 초청 특별대담

19일 고은 논설고문과 함께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베트남의 세계적 불교지도자 턱박한 스님은 한국에서의 바쁜 일정 가운데 19일 현대 불교신문사 논설고문 고은씨와 특별대담을 갖는다. 대담에 앞서 턱박한 스님이 현대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구상한 오계를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살펴본다.

턱박한 스님의 오계

하나 무릇 생명의 파괴로 비롯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지혜로운 마음을 키워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나의 생활이나 생각속에서도 살생하지 않으며 남으로 하여금 살생케 하지 않으며 이 세상의 어떠한 살생 행위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착취와 사회적 불의, 도둑질이나 억압으로 인해 비롯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사람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자애로운 마음을 키워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힘과 물질적 재원을 곤궁한 이들과 나누는 관용을 배울 것을 서약합니다. 내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훔치거나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존중하되 인간의 고통이나 지구상의 다른 생물의 고통으로부터 이익을 구하는 이들을 지지할 것입니다.

셋 음행으로 비롯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개인과 부부와 가족과 사회의 안전과 온전함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고 책임감을 키워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나와 남의 행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의 언약과 남의 언약도 존중할 것입니다. 어린이들

"생각속이라도 살생하지 말라" 기쁨·행복주는 진실한 말 나누도록

을 성격확대로부터 보호하고 부부와 가족이 음행으로 인해 깨어지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 거짓된 말과 남에게 귀기울이지 못하므로 비롯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남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고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진실한 말과 성실한 듣는 법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자신감과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말로 진실되게 말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사실을 퍼뜨리거나 확신할 수 없는 일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화나 분열을 야기시키거나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깨뜨릴 수 있는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모든 갈등을 화해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섯 무절제한 소비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자각하고 조심스럽게 먹고 마시고 소비함을 실천하여 자신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 심심양심의 건강을 키워나갈 것을 서약합니다. 나의 몸과 의식 그리고 가족과 사회집단의 의식에 평화와 행복과 기쁨을 보존해 주는 것만 섭취할 것을 서약합니다. 술이나, 취하게 하는 어떠한 것도 사용하지 않으며 음식, 일부 TV프로그램, 잡지, 서적, 영화, 저속한 대화처럼 독소를 지니고 있는 것들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독소들로 내 몸과 의식을 손상시키는 것은 나의 조상과 부모, 사회와 미래의 시대를 배반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신행수첩

첫발심이 바른 깨우침 부부나포교원 교리 강좌

인천지역 불자들의 불교교리 교육과 소양함양을 위한 기초교리강좌가 개설돼 주위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90년 가을학기부터 불교교리대학을 개설한 부부나 포교원(원장 선일스님)이 18일부터 3개월과정 제10기 수강생을 모집하며 강의는 매주 수·목요일 오후3시, 저녁8시 두차례 실시한다. (032)576-9741.

나이 잇는 새삼 새출발 설산스님 합동결혼식 마련

우리 주위에는 집안사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봄빛이 완연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5일동안 3백여쌍에게 주례는 물론 결혼비용

세대를 넘어서 봄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청소년 어울마당 23일 인천서

화창한 햇빛이 봄의 향취를 더욱 향기롭게 하는 날, 엄마·아빠가 자녀의 손을 맞잡고 뛰고 구르며 맘껏 웃어보면 어떨까! 아이들은 공부에 쫓기고 부모세대들은 삶에 쫓기면서 자녀와 함께 할 기회가 마땅히 없는 이 때,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가 '부모와 함께하는 노래이야기'라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마련한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서구 구민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지역 거주 청소년과 가족 2백여명을 대상으로 '간절한 가정, 따뜻한 이웃'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이날 행사는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노래를 통한 나눔, 다함께 부르는 노래, 이야기를 통한 나눔의 놀이가 다양하게 개최돼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간에 새로운 관계가 모색될 전망이다. (032)885-5593.

서산대사 총헌 그윽 대문사 나라사랑 글짓기

왕벚나무와 짙붉은 동백꽃이 온산에 피어나는 화창한 봄날, 해남 대문사(대총사)에서는 오는 25일 서산대사 탄신 475주년기념 제1회 나라사랑 글짓기대회가 열린다.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와 향토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개최되는 이번 글짓기대회는 초·중·고등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전10시 서산대사 유물관 앞에서 실시된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공을 이룩한 서산대사를 기리는 뜻깊고 알찬 글짓기 대회에 동참하여 대문사 동백꽃의 그윽한 향기를 맡아보자. (0654)34-5502.

불자마음에 도는 자비심 등명 탁가사 낙성식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강을 불자들의 힘없는 불심이 이 지역에 또 한분의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여래 부처님을 오시게 했다. 조계종 제 4교구 등명 탁가사(주지 정우스님)는 19일 오전 11시 등명탁가사 극락보전·약사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또 큰법당 개금불사와 함께 일광·월광보살 점안 법회도 열린다. 증명으로 참석하실 백암스님(선원사 조실)과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의 면벽에 미소가 돌고 부처님을 우러르는 불자들의 마음이 자비가 풀 때 여기가 바로 부처님 세상, 자애로운 누리.(0391)44-5337.

세대의 벽을 넘어서

봄과 함께 엄마 아빠와 함께

청소년 어울마당 23일 인천서

화창한 햇빛이 봄의 향취를 더욱 향기롭게 하는 날, 엄마·아빠가 자녀의 손을 맞잡고 뛰고 구르며 맘껏 웃어보면 어떨까! 아이들은 공부에 쫓기고 부모세대들은 삶에 쫓기면서 자녀와 함께 할 기회가 마땅히 없는 이 때,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가 '부모와 함께하는 노래이야기'라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마련한다. 오는 23일 오후 3시 서구 구민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지역 거주 청소년과 가족 2백여명을 대상으로 '간절한 가정, 따뜻한 이웃'이라는 주제 아래 펼쳐지는 이날 행사는 세대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이해하며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노래를 통한 나눔, 다함께 부르는 노래, 이야기를 통한 나눔의 놀이가 다양하게 개최돼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간에 새로운 관계가 모색될 전망이다. (032)885-5593.

구도로 꽃피우는 부부애

삼천사 오대·치악산 순례

노오란 개나리가 한껏 멋을 내고 그 옆으로 시샘하듯 붉은 진달래가 자라한 사랑스런 봄날. 그 개나리 진달래 만발이나 아름다운 부부봉심을 뽐내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천사 부부가족법회는 봄을 맞아 성지순

불교방송 창사 5주년

"3천배를 올리는 정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불교방송이 깨침의 범종소리를 울린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장엄한 소리가 온 산하에 더욱 넓고 깊게 퍼지도록 3천배를 올리는 정성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교방송은 오는 5월 1일 창사 5주년을 맞이 합니다. 2천만 불자의 서원을 받들어 첫 전파를 발사했던 그 감동의 기억으로 더욱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최고의 방송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절차탁마의 자세로 정진할 것을 임직원 모두는 다짐합니다. 불교부산방송, 불교광주방송에 이어 경북, 충청, 강원 지역방송개국을 앞당겨 전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삼보를 더욱 높이 받들고 불교계를 적극 대변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이러한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땅의 세계(苦)의 소멸, 즉 적멸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그리고 땅의 세계의 본래적인 생사고해는 끝없는 무한판단의 자비심으로 정화시켜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땅의 세계(苦)에 대한 수행자로서의 올바른 수행자의 길이며 성직자로서 올바른 성직자의 길일 수 있는 것이다.

불자마음에 도는 자비심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강을 불자들의 힘없는 불심이 이 지역에 또 한분의 아미타 부처님과 약사여래 부처님을 오시게 했다. 조계종 제 4교구 등명 탁가사(주지 정우스님)는 19일 오전 11시 등명탁가사 극락보전·약사보전 낙성식을 봉행한다. 또 큰법당 개금불사와 함께 일광·월광보살 점안 법회도 열린다. 증명으로 참석하실 백암스님(선원사 조실)과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의 면벽에 미소가 돌고 부처님을 우러르는 불자들의 마음이 자비가 풀 때 여기가 바로 부처님 세상, 자애로운 누리.(0391)44-5337.

불교방송 창사 5주년

"3천배를 올리는 정성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불교방송이 깨침의 범종소리를 울린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장엄한 소리가 온 산하에 더욱 넓고 깊게 퍼지도록 3천배를 올리는 정성으로 정진하겠습니다.

불교방송은 오는 5월 1일 창사 5주년을 맞이 합니다. 2천만 불자의 서원을 받들어 첫 전파를 발사했던 그 감동의 기억으로 더욱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최고의 방송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거울삼아 절차탁마의 자세로 정진할 것을 임직원 모두는 다짐합니다. 불교부산방송, 불교광주방송에 이어 경북, 충청, 강원 지역방송개국을 앞당겨 전국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삼보를 더욱 높이 받들고 불교계를 적극 대변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획을 펼쳐겠습니다.

- 불교방송 창사 5주년 세계불교문화전 한국 대장경 전신화 '95음역공명의 밤 대공전(선, 비다, 가림의 하모니) 인도무용극(사운드트랙 남안)
- 개화100주년, 광복 50년 다류엔터테인먼트(개척세 이등인) 연속대담(해방세대는 말한다) 한국속의 일본, 일본속의 한국
- 불교방송 전국방송 원년 서울, 부산, 광주(24시간 3원 생방송) 남산, 해운대, 무등산(라디오터링)
- 연중종교대담 (이웃속의 부처님을 찾습니다) 보살을 만나다 자신음악회 모금생방송 (온누리에 자비를)
- 불교방송 학술조사단 대담사 (남해문화사도감 발굴)
- 보도특집 (성보문화재의 오늘과 내일)
- 대토론 (한국불교의 세계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연중기획 (동일한 향연 불교)

새움이 듣는 봄날, 우리의 정신도 새싹을 틔워 부처님 법을 따라야 할 때이다. 이 화창한 봄에 불자들의 정신을 풍성하게 해 줄 명사들의 연속 강좌가 마련됐다. 강남 소림불교아카데미(원장·지행)가 지난 12일 무진장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 강좌에 가본 교계 명사들의 명강연을 들을 수 있다.

앞으로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시작되는 이 강좌에서는 정락스님, 암도스님, 보각스님, 고은스님, 정병조교수, 류시화시인, 지형스님 이 삼의 지혜를 일깨워 준다. 강연내용은 불교의 기초교리에서 생활불교, 참선, 명상, 건강, 금강경대의, 법화경대의, 자녀교육의 바른 방향 등이다. (02)511-6210.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MHz 부산 FM 89.9MHz 광주 FM 89.7MHz